

##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호직무와 기피직무

- 보수가 적더라도 공장보다 사무실에서 일하겠다는 응답은 78.0%로 사무 직무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이는 반면, 기계를 직접 다루거나 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60.9%로 기계 관련 직무에 대한 기피경향을 보임.
- 회귀분석 결과, 직무에 따른 성별 격차가 큰 편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사무 직무를 선호하며(1.66배), 기계 제작·수리 직무를 기피함(0.36배).
- 직무에 대한 선호와 기피는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 없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이나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선호와 기피가 뚜렷한 계층은 고용률이 낮으며, 선호분야는 임금이 낮고 기피분야는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음.
- 학교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진로체험 강화를 통해 개인의 실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 선호직무와 기피직무 현상을 파악하여 일자리 정착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함.
- 우리나라는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업무 관행으로 인하여 공장 등 생산 현장에서 수행하는 특정 직무보다, 업무 관리나 통제 등과 관련된 사무 직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국민은 인지능력과 추론 중심의 교육으로 인하여 실제 현장 직업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고, 기계나 도구 등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해당 직무에 대한 기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 선호직무와 기피직무 현상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탐색하여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설문조사(2018)」 조사 자료
- 분석 대상: 지역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15세 이상 1,500명
  - 조사대상자 중 취업자는 1,005명(67.0%)으로, 이는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64세 고용률(66.6%)과 거의 일치함.

〈표 1〉 연령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취업자		미취업자		합계	
15~29세	161	10.7	231	15.4	392	26.1
30~39세	224	14.9	72	4.8	296	19.7
40~49세	279	18.6	66	4.4	345	23.0
50~59세	259	17.3	79	5.3	338	22.5
60~64세	82	5.5	47	3.1	129	8.6
합계	1,005	67.0	495	33.0	1,500	100.0



주

- 1) 문항: ①보수가 적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 ②나는 기계를 손에 문히고 기계를 직접 다루거나 수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 2) 4점 척도에서 '3그렇다' 혹은 '4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례임.

- 분석 방법: 직업에 대한 의견과 관습에 대한 문항<sup>6)</sup>에 대해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여 유형별로 비교 분석함.

02 선호 직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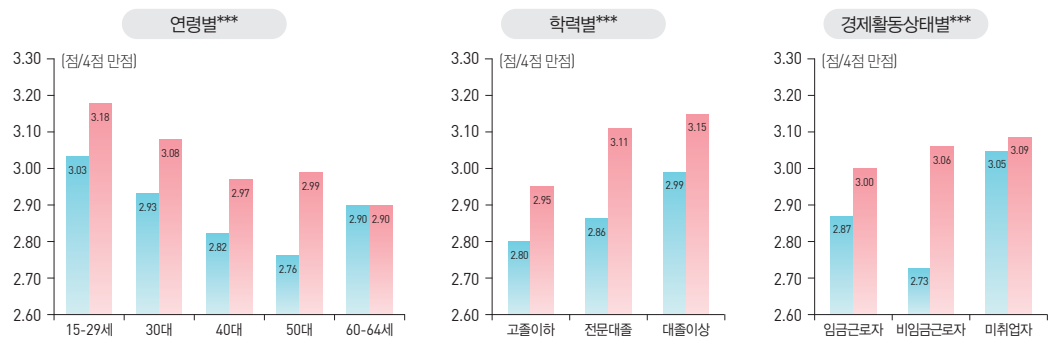
대체로 보수가 적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보수가 적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8.0%(1,170명)가 동의<sup>2)</sup>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공장 등 생산 현장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함.
-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임금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사무직을 하겠다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음.
  -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비교하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사무직 선호가 뚜렷한 편인데, 특히 50대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무 직무에 대한 선호가 뚜렷함.
  - 동일 학력 수준에서 성별 차가 가장 큰 집단은 전문대졸(0.25점)이며, 다음은 대졸 이상(0.16점), 고졸 이하(0.15점) 순임.
-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미취업자(3.08점)가 사무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금근로자(2.92점), 비임금근로자(2.85점) 순임.



각주

- 1) 연령별:  $F_{(9, 1490)} = 6.00, p = 0.0000$
- 2) 학력별:  $F_{(5, 1494)} = 9.70, p = 0.0000$
- 3) 경제활동상태별:  $F_{(5, 1494)} = 7.81, p = 0.0000$



[그림 1] 성별 개인특성별 사무 직무 선호

사무 직무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성, 청년층, 대졸 이상, 읍면지역 거주일수록 뚜렷해짐.

- 순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s)을 이용한 전체 응답자 대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임금이 낮더라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선호하는 집단은 여성으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남성에 비하여 1.66배 더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음.
  - 연령에 따라 30~50대보다 20대 이하 청년층이 사무실 직무 수행에 대한 선호도가 1.54배 높음.
  - 학력 수준별로 전문대졸을 기준으로 대졸 이상은 사무 직무에 대한 선호가 1.36배 더 높은 반면, 고졸 이하는 사무 직무를 0.74배 선호도가 낮음.
  -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읍면지역 거주자는 1.58배 더 뚜렷하게 사무 직무를 선호하고 있음.
  - 경제 여건에 따른 사무직 선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이는 사무직 선호에는 경제적인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1.86배 더 사무 직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 여성에게서 사무 직무 선호가 더욱 뚜렷해짐.
  - 연령별로 20대 이하 청년층이나 학력별로 고학력자는 사무 직무에 선호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높음.
  - 중소도시 거주자를 기준으로 읍면지역 거주자가 1.54배 더 사무 직무를 선호함.
  - 취업자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사무 직무 선호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경제 여건이 사무직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임.

〈표 2〉 사무 직무 선호의 결정요인

구분	전체			취업자			
	$\beta$	$exp(\beta)$	SE	$\beta$	$exp(\beta)$	SE	
성별	남성	(준거집단)			(준거집단)		
	여성	0.505***	1.657	0.1073	0.620***	1.859	0.1319
연령	20대 이하	0.433***	1.542	0.1283	0.334*	1.397	0.1784
	30~50대	(준거집단)			(준거집단)		
	60대	0.115	1.122	0.1922	0.262	1.300	0.2384
학력	고졸 이하	-0.301**	0.740	0.1447	-0.304*	0.738	0.1813
	전문대졸	(준거집단)			(준거집단)		
	4년제 대학 이상	0.306**	1.358	0.1444	0.289*	1.335	0.1742
고용 지위	정규직	-0.254*	0.776	0.1321	0.013	1.013	0.2161
	비정규직	-0.492***	0.611	0.1719	-0.245	0.783	0.2426
	고용주	-0.371*	0.690	0.2020	-	-	-
	미취업자	(준거집단)			(준거집단)		
지역	대도시	0.02	1.020	0.1111	-0.039	0.962	0.1374
	중소도시	(준거집단)			(준거집단)		
	읍면지역	0.458***	1.581	0.1558	0.431**	1.539	0.1880
경제 여건	어려움	-0.057	0.945	0.1370	0.083	1.087	0.1844
	보통	(준거집단)			(준거집단)		
	여유	-0.251*	0.778	0.1335	-0.224	0.799	0.1541
기업 규모	소규모(9인 미만)	-	-	-	-0.219	0.803	0.1528
	중규모(10인~299인)	-	-	-	(준거집단)		
	대규모(300인 이상)	-	-	-	-0.088	0.916	0.2475
n/x <sup>2</sup> /Pseudo R <sup>2</sup>		1,500/92.47/0.0305			1,005/54.96/0.0273		

각주

- 1) \*\*\* p<.001, \*\* p<.01, \* p<.05.
- 2) 절편(전체): -3.990014, -0.6751041, 2.13235.
- 3) 절편(취업자): -3.617211, -0.3814391, 2.508894.

03 기피 직무 분야

대체로 기름을 손에 묻히고 기계를 직접 다루거나, 고장을 수리하는 직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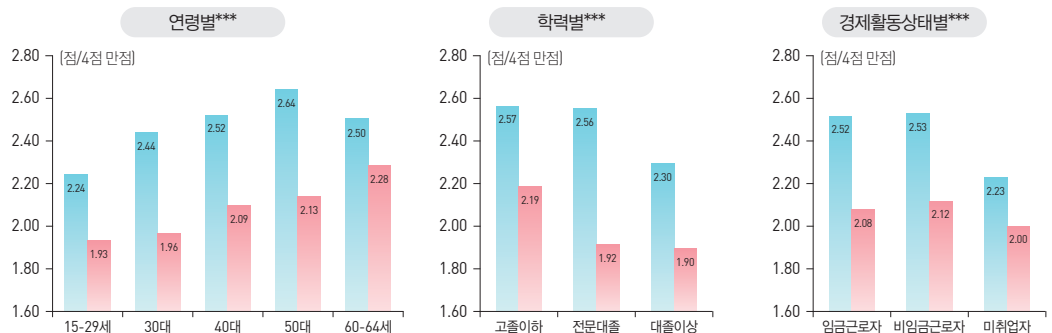
- 3) 4점 척도에서 '①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②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례임.
- 4) 적극 기피(전혀 그렇지 않다)와 ②기피(그렇지 않다)로 해석함.

- '기름을 손에 묻히고 기계를 직접 다루거나 수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은 '동의하지 않음<sup>3)</sup>'이 60.9%(913명)로 평균적으로 기계 관련 직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로 보면 남성(2.45점)보다 여성(2.05점)가 기피 수준<sup>4)</sup>이 더 높음.
-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계 관련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이 증가함.
  - 특히 여성 집단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계 관련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고 기피 성향이 강함.
-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계 직무에 대한 기피가 뚜렷함.
  - 동일한 학력 수준에서 성별 차가 가장 큰 집단은 전문대졸(0.64점)이고, 이어서 대졸 이상(0.40점), 고졸(0.38점) 순임.



각주

- 1) 연령별:  $F_{[9, 1490]} = 16.06, p = 0.0000$
- 2) 학력별:  $F_{[5, 1494]} = 30.11, p = 0.0000$
- 3) 경제활동상태별:  $F_{[5, 1494]} = 24.77, p = 0.0000$



[그림 2] 성별 개인특성별 기계 직무 기피

기계 직무를 기피하는 경향은 여성, 대졸 이상, 읍면지역 거주일수록 뚜렷해짐.

- 순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s)을 이용한 전체 응답자 대상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계 제작이나 수리하는 직무를 기피하는 집단은 여성으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남성에 비하여 기피 정도가 0.36배 높음.

- 연령에 따라 30~50대보다 20대 이하 청년층이 기계 직무 수행에 대한 기피가 0.68배 더 높음.
- 학력 수준별로 전문대졸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는 기계 관련 직무 수행일지라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1.46배 더 높으나, 대졸 이상은 0.71배 더 기피함.
- 미취업자에 비하여 정규직은 기계 관련 직무라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1.50배 더 높음.
- 경제 상황에 따른 기계 직무 기피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이는 기계 직무 기피가 경제적인 압력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기계 관련 직무에 대한 기피가 남성보다 0.32배 더 높아 취업자 여성에게서 기계 직무 기피가 더욱 뚜렷해짐.
  - 학력 수준별로 전문대졸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는 기계 관련 직무 수행일지라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1.41배 더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0.69배 더 기피함.
  - 연령, 고용지위, 경제 상황, 기업규모에 따른 기계 직무 기피 경향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음. 이는 기계 직무 기피가 경제적인 압력이나 기업규모 등과 관련되지 않고, 주로 개인적인 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표 3〉 기계 직무 기피의 결정요인

구분	전체			취업자			
	$\beta$	$exp(\beta)$	SE	$\beta$	$exp(\beta)$	SE	
성별	남성	(준거집단)			(준거집단)		
	여성	-1.010***	0.364	0.1052	-1.135***	0.321	0.1284
연령	20대 이하	-0.386***	0.680	0.1237	-0.181	0.834	0.1727
	30~50대	(준거집단)			(준거집단)		
	60대	0.023	1.023	0.1814	-0.263	0.769	0.2228
학력	고졸 이하	0.381***	1.464	0.1390	0.346**	1.413	0.1740
	전문대졸	(준거집단)			(준거집단)		
고용지위	4년제 대학 이상	-0.343**	0.710	0.1390	-0.369**	0.691	0.1666
	정규직	0.408***	1.504	0.1263	0.126	1.134	0.2010
고용지위	비정규직	0.271	1.311	0.1648	0.06	1.062	0.2277
	고용주	0.194	1.214	0.1913	-		
	미취업자	(준거집단)			(준거집단)		
지역	대도시	0.008	1.008	0.1067	0.047	1.048	0.1313
	중소도시	(준거집단)			(준거집단)		
	읍면지역	0.685***	1.984	0.1472	0.734***	2.083	0.1758
경제상황	어려움	0.07	1.073	0.1313	-0.064	0.938	0.1720
	보통	(준거집단)			(준거집단)		
	여유	0.017	1.017	0.1272	-0.017	0.983	0.1482
기업규모	소규모(9인 미만)	-			-0.047	0.954	0.1442
	중규모(10인~299인)	-			(준거집단)		
	대규모(300인 이상)	-			-0.059	0.943	0.2402
n/x <sup>2</sup> /Pseudo R <sup>2</sup>		1,500/199.65/0.0563			1,005/122.88/0.0516		

각주

- 1) \*\*\* p<.001, \*\* p<.01, \* p<.05.
- 2) 절편(전체): -2.856729, -0.7052155, 2.059424.
- 3) 절편(취업자): -3.292173, -1.199844, 1.586661.

04 시사점

- 사무 직무에 대한 선호와 기계 직무에 대한 기피 현상은 조직 중심의 일처리 관행, 인지능력과 추론 중심의 교육제도, 일자리에서 성 역할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특정 직무에 대한 과도한 선호는 혼잡효과로 인한 임금하락이 발생하며, 과도한 기피는 해당 분야 구인난과 이에 따른 발전 지체가 나타남. 그 결과 해당 계층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학교 교육단계에서 직업체험 확대를 통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고, 생산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직업의 중요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중심 노동시장으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박 천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